

2018년 10월 시청자위원회 정례회의 회의록

일시 : 2018.10.25.(목) 오전 10:30

■ 주요 회의 내용

▲ 보도의 균형 및 심층성, 속보성 제고

- 제공된 뉴스를 보도할 때 주의할 필요가 있음. 얼마 전 김두관 의원실에서 국세청 자료를 인용해 소득원천별 총소득액과 상위 1% 소득자의 소득액을 비교한 자료를 내놓았는데 이를 여과 없이 보도함. 의원실에서는 금융소득의 경우 상위 1% 소득자가 금융소득 총액의 34%를 차지해 다른 소득원에 비해 양극화문제가 가장 심각하다는 내용을 밝힘. 그리고 대안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금액을 현행 2천만 원보다 낮추는 등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함. 그러나 이런 주장은 현실적으로 부적절한 측면 존재함. 무엇보다, 소액의 금융소득자까지 과세하게 되어 금융소득 관련자산 축적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국가적으로 선진국에 비해 금융소득 수입은 낮고 부동산 자산에 편중되어 있어 문제인데.. 이런 문제를 심화시킬 소지가 있음. 자료제공자가 의도를 갖고 제공하는 보도 자료에 대해서는 시청자들에게 혼란요인은 없는지 균형감 있는 판단이 사전에 이뤄졌으면 함(이경상 위원)
- 10월3일 오후 11시30분 스포츠 뉴스에서 야구에서 강백호의 신인 홈런 27개로 역대 2위에 올랐다는 뉴스는 야구에 관심 있는 시청자들에게도 역대 1위는 누구며 몇 개인지 등 궁금증을 남김. 당연히 역대 1위는 누구이며 몇 개라는 추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시청자에 대한 예의일 것임(최신용 위원)
- 뉴스메이커는 좋은 뉴스 프로임. 몇 개의 뉴스로 하루를 제법 깊이 있게 일별할 수 있게 해줌. 이 프로만 봐도 화제에서 뒤쳐질 염려는 없을 것 같음. 그러나 아쉬움도 있음. 건조하게 상황 전달에만 집중하다보니 한 줄의 분석이나 평가도 없다. 독자들은 이런 기획성 프로그램에서 매체나 기자의 평가나 분석을 듣거나 보고 싶어함. 사실 이 프로그램에 선정된 아이템들은 대부분 시비가 분명한 사안, 독자들이 시비를 알고 싶어 하는 사안임. 중립성 객관성을 이유로 의견만 맞세우는 것은 독자들을 오히려 외면하게 만듦. 예컨대 23일 뉴스메이커에는 고용세습 논란 등 5꼭지가 소개됐다. 고용세습 논란의 경우 이날의 쟁점은 국정조사 여부였을 것임. 이미 야4당이 국조를 요구했고, 여당도 필요성은 인정한 터였다. 국조는 더 이상 논란의 대상이 아니었음. 이런 경우 불편부당 중립을 지킬 이유도 필요도 없음. 구 노량진시장 퇴거 강제집행의 경우 이날 3번째였고, 이전과 마찬가지로 무산됐음. 연합뉴스티브이는 지금까지 계속된 강제집행과 무산에서 드러난 양쪽의 입장만 되풀이해서 전했음. 독자들이 알고 싶은 것은 3차 집행이 있었다는 것이나 집행이 무산됐다는 사실이 아님. 상인들의 주장이 맞는 것인지, 법원의 판결에 문제는 없는 것인지, 수협의 대처에 잘못된

없는지 등이 그것임. 캐리번으로 알려진 중미 시민들의 미국 이민 행렬의 경우 급속하게 불어나는 행렬의 실태와 트럼프의 발언이 진실인지에 초점을 맞췄음. 사실 이보다 더 궁금한 것은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지였음. 국민들을 다른 나라로 내모는 중미 각국의 내부 사정은 어떠한지, 중미를 빈곤과 범죄와 정치 혼란의 악순환 속으로 빠트린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등이다. 이에 대해 한 두 마디라도 관계자들이나 기자의 판단을 전했다면 좋았을 것임. 좋은 프로그램이 그 심심함으로 말미암아 외면당할까 걱정스러움(곽병찬 위원)

- 덧붙이면, 전문가의 해설이 좀 더 깊이 있게, 시청자의 이해를 돕는 내용이 되었으면 좀 더 좋은 프로가 되지 않았을까 함(김석민 위원)
- 어떤 이슈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과 해설을 해준다던지 의미를 알려주는 것이 나와야 하는데 차별성이 없음. 최근에 이슈가 된 내용 중 심신미약자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사회적인 문제수준의 정보와 시스템에 대해서 짚어줄 필요가 있음. 이런 이슈가 어디에서 왔는지 화재성만 보도에서 강조하고 있음. 그동안의 피해사례라든지 왜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고 고쳐지지 않는지 더욱 심층적인 보도가 필요함(이우영 위원)
- 10월 7일 이날 하루 연합뉴스TV는 몹시 답답했음. 고양에서 대형 저유소 단지의 한 탱크에 화재가 발생하는 대형사고가 났고,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우여곡절 끝에 평양을 방문했음. 속보가 쏟아져야 할 상황인데 연합뉴스티브이엔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았음. 고양 저유소 화재사고는 연기가 여의도까지 날아올 정도로 컸음. 하루 종일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서 1위에 올랐고, 재해대책위원회가 긴급재난문자까지 발송할 정도였음. 시민들은 이웃한 다른 초대형 탱크로까지 화재가 옮길까 전전긍긍했음. 그러나 연합뉴스티브이는 태평이였음. 사고가 나고 두어 시간이 지났지만 뉴스는 단신이나 스크롤뿐이였음. 경쟁사인 와이티엔의 경우 중계차까지 보내 실시간으로 화재 상황을 보도했음. 뉴스 판단의 문제였는지, 장비나 인력의 문제였는지 궁금했음. 폼페이오 평양 방문은 오래 전 예고된 행사였음. 교착상태에 빠져있던 북미 비핵화협상의 돌파구가 될 것인지 이목을 집중시킨 사안이였음. 그러나 연합뉴스티브이만 보고서는 평양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에 대해 알 수 없었음. 필요한 속보 대신 지루한 전문가 대담 등을 보냈음. 와이티엔은 영상이 접수되면 다른 뉴스를 중단하면서까지 즉시 영상을 송출했음. 폼페이오의 평양 도착, 김정은 위원장과의 오찬, 오산 공항 도착, 청와대 방문 및 문재인 대통령 접견 등의 영상은 와이티엔을 통해서나 볼 수 있었음. 영상 구입비용이 비싸서 그랬을까? 참으로 답답했음(곽병찬 위원)

▲ 화면구성, 자막 등 표현 개선 필요

- 문화나 관광관련 뉴스, 계절과 날씨 소개시 명승지 또는 자연 경관 화면에는 장소 정보를 자막으로 동시 제공. 검찰기사에서 사건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화면

반복 사용함(심재철, 형사사건 사례)(권영후 부위원장)

- 문대통령 프랑스 방문 보도에서 저녁 11시 뉴스에 무명용사 헌화 장면 반복 노출함. 타사의 시가행진 등 다양한 화면 구성과 대비 됨(권영후 부위원장)
- 뉴스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사실성은 텍스트 기사의 경우 내용으로 구성되지만 방송뉴스의 경우에는 영상에 의해 주로 구현됨. 생생한 현장 영상은 방송뉴스의 생명이며, 취재화면을 아무런 가공 없이 있는 그대로 시청자에게 전달하는 것은 보도의 기본원칙임. BBC나 외국 방송에서는 뉴스영상에 어떠한 변형을 가하거나 가공의 이미지를 입히는 것을 금기시하며 그런 장면을 거의 보기 어려움. 그런데 우리 방송사들은 언제부터인가 뉴스영상의 일부나 전체를 모자이크 하거나 흐릿하게 '블러' 처리하는 것이 관행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행해짐. 예전에도 화면 변조는 드물게 볼 수 있었지만 요즘에는 이런 변조를 하지 않은 기사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다반사로 이뤄지고 있음. 화면변조가 늘어나는 것은 사회 전반의 인권의식 상승과 무관치 않고,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도 있음. 예를 들어 신원이 공개되면 피해를 볼 수 있는 범죄 피해자나 제보자를 보호하고, 개인의 초상권을 존중하기 위한 경우 등이 그러함. 그러나 현재는 이러한 수준을 넘어 어떠한 기사든 유명인이나 공개행사 자리가 아니면 대부분의 등장인물 얼굴을 블러처리하거나 심한 경우 전체 화면을 흐리게 처리하는 기계적인 관행으로 굳어져가고 있음. 어떤 경우에는 너무나 많은 장면들이 흐리게 처리되어 해당 영상이 무슨 상황인지 파악하기조차 어려움. 이런 변조관행은 공영방송에서 특히 심하며 연합뉴스TV도 크게 다르지 않음. 예를 들어 10월10일 저녁 <뉴스리뷰>에서 보도된 상위 20개 기사를 살펴보면 블러처리를 한 장면이 하나도 없는 기사는 8건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음. 이 8건은 국정감사 기사 2권, 국제뉴스 2건, 북한뉴스 2건, 화재기사, 과거사에 해당하는 형제복지원 기사였음. 화면을 일부라도 변조한 12건 가운데 사람 얼굴 같은 특정 부분만 블러처리한 것이 아니라 전체 화면을 흐리게 처리한 장면이 하나라도 들어간 기사는 6건이었음. 불특정한 사람이 나오는 장면, 즉 병원, 학교, 사무실, 거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예외 없이 등장인물 얼굴을 흐리게 처리함. 문제는 이 관행이 인권보호라기보다는 문제의 소지가 아예 없애버리는 편의적 발상에 따라 별다른 원칙도 없이 임의적으로 행해진다는 점임. 기본적으로 영상취재에 응하는 것은 자신이 방송뉴스에 나와도 좋다고 간접적으로 동의한 것임. 또 본인이 원치 않는다해도 국민의 알권리에 해당하고, 공익적 차원에서 보도가치가 있으면 공개해도 무방하다는 것이 원칙임. 그런데도 이런 경우에도 블러처리를 한함. 예를 들어 지난 1일 뉴스20에 소개한 예멘 난민 관련 보도를 보면 많은 기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회견을 하는 예멘 난민으로 보이는 사람의 모습이 블러처리되어 나왔음. 기자회견은 자신의 신원을 드러내고 주장하는 행위인데 왜 블러처리를 해야 하는가? 또 지난 달 27일에는 다음날부터 시행되는 자동차 전좌석 안전벨트 의무화 뉴스를 보도하면서 안전벨트를 잘 매는 엄

마와 아이 영상이 나왔음. 영상 내용으로 볼 때 촬영에 적극적 응하는 모습이었고, 보도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이유도 없는 내용이었음. 그런데도 아이 및 부모 얼굴을 알아볼 수 없게 처리했음. 고3 시험지를 유출한 학교, 교사가 원생을 폭행한 유치원에 대한 보도에서는 그 건물 전체를 불러처리해서 건물의 윤곽조차 보이지 않았음. 거리 인파가 등장하는 화면은 어떤 경우에는 불러처리하고, 어떤 경우에는 하지 않음. 기준이 무엇인지 모르겠음.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화면변조가 남발되는 현상은 외부환경 탓도 큼. 국내 언론환경은 언론중재, 방송심의 등 여러 제도를 통해 언론에 가해지는 간섭과 제약이 많고, 디지털 환경으로 인해 보도내용에 대해 언론사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음. 이런 요구와 압력, 소송 가능성에 시달리다보니 방송사는 조금이라도 문제소지가 있을 것 같으면 먼저 알아서 처리하는 것이 아닌가 함. 저널리즘 용어로는 전형적인 '위축효과'임. 그래서 이 문제는 언론자유와 위축이라는 측면에서 심각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음. 그렇지만 언론자유는 언론인이 먼저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 함. 불필요한 화면변조가 증가하는 것은 그런 점에서 우려됨(배정근 위원)

- 뉴스 속보 제공 방식의 다양화가 필요함 타사들의 광고시간 상단에 뉴스 자막 소개를 참고하길 바람. 광고주와 협의가 필요하다면 공익광고 화면 사용을 검토하면 좋을 것(권영후 부위원장)
- 대부분의 뉴스 방송 진행 시 하단에 계속 나오는 속보 자막 방송과 관련 하여, 지나치게 단축된 내용으로 인하여 부정확하거나 의미가 불분명한 경우가 계속 눈에 띈. 예를 들어, 10.7 오후 5시 뉴스의 경우, “장기 이식 기다리다 하루 4.4명 숨져”와 같은 자막 뉴스는 장기 이식 이외에 다른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들이 많아졌다는 취지의 보도인지, 장기 이식 제도에 문제가 있어서 사망 환자가 늘고 있다는 내용인지 불분명함. 같은 날 또 다른 자막 뉴스는 “단체행동 한다고 불이익... 피자예땀 과징금 15억” 내용이었는데, 이 자막도 보도 내용에 관해 사전 지식이 없는 시청자에게는 불확실한 보도가 되었음(오준 위원장)
- 이러한 문제점들은 자막을 만들 때 마치 신문기사의 헤드라인을 뽑듯이 짧은 문장에 함축하려는 의도가 너무 강하다 보니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CNN을 포함한 외국 뉴스 채널들은 대체로 짧더라도 필요한 정보는 모두 포함된 문장을 자막 처리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때로는 2개의 문장으로 끊어서 작성하기도 하며, 자막이 계속 흘러가기 때문에 문장이 좀 길더라도 시청에 별 문제가 되지 않음)(오준 위원장)
- 영문으로 된 자막 서비스 등이 제공되고 있어 외국인이나 청각 장애인 등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들지만, 영문 자막이 한국어로 된 '간단한 키워드 제공' 화면을 그대로 덮어서 제공되고, 자막의 양이 한꺼번에 많이 올라오고 글씨 크기가 너무 작으니까 자막이 제공되는 시간이 좀 짧아서 많은 불편과 아쉬움이 있었음. 조금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해 보임(노영희 위원)

- 리벤지포르노, 정보보호와 같은 단어를 시청자가 이미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사용함. 용어 배경, 사용 이유, 시청자와의 연결성 등에 대해 간명한 해설이 필요함(권영후 부위원장)
- 한글날 방송된 한글 파괴 우려 보도에서 젊은이들이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알아듣기 힘든 축약어, 신조어가 보여주는 사회적 의미를 문화평론가를 초대하여 시청자의 이해를 도운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세대간, 집단간 벽을 극복하기 위한 품격 있는 방송의 역할을 강조한 것도 의미 있음. 아파트마다 국적 불명의 아파트 이름을 사용한다든지 골프장 이름을 영문으로 개명한다든지 하는 한글 비하 현상도 잘 지적했음. 이처럼 분양성을 높이려거나 외래어가 세련돼 보인다는 문제 인식을 한글날처럼 특별한 날만 보도할 것이 아니라 상시적인 캠페인으로 전개하면 좋겠음. 나름대로 대책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할 것임(최신용 위원)
- 최근 PC방 살인 사건 등으로 정신장애인 관련 보도, 정신장애와 심신장애와 관련된 보도들이 많은데, 다소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있음. 법원, 칼부림 정신장애인 징역 6년…“심신미약 인정 안 돼” 이런 제목은 정신장애인은 칼부림을 하는 사람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음. 실제로 내용을 보아도 이 사람이 칼부림을 한 것과 정신장애가 관련이 있다는 개연성도 없음. 내용에서도 “수원지법은 복지급여 지급에 불만을 품고 주민센터 공무원에게 흥기를 휘두른 50대 정신장애인 최 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 굳이 정신장애인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았어도 될 것 같음. 그냥 50대 최 모 씨라고 하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과거 정신질환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라는 내용만 덧붙여도 충분함(하규섭 위원)

▲ 프로그램 기획, 제작, 편성 의견

- 김부선 검찰출석 화면 동일시간에 반복 사용함. 9,28 11시 뉴스 소개하고 ‘말 말 말’에서 반복 노출. 유명인사 보도의 선정성 집착, 전파낭비 지적에 유의해야함(권영후 부위원장)
- 이번 프로는 추석특집으로 했는데 이러한 기획프로를 좀 더 많이 해서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들을 다루어 나가면 좋겠음. 지금 경제, 사회분야의 많은 이슈들이 있음. 고령사회, 부동산, 고용 및 청년실업 등등(김석민 위원)
- 여러 차례,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진행하는 아나운서의 표정과 자세에 대해 얘기하면, 너무 긴장되고 딱딱한 분위기가 많은 것 같음. 뉴스의 내용에 따라서는 좀 여유 있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약간의 미소를 띠면서 하면 어떨까 싶음. 예를 들어 따뜻하고 훈훈한 내용의 뉴스에서는 분위기를 바꿔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봄(김석민 위원)
- 뉴스 시작시간이 정시시작을 하지 않는 것이 전략적이라서 좋긴 하지만 시작부

터 시청하기에 불편함. 시작시간을 통일시킨다면 편한 시청이 가능함(이우영 위원)

▲ 프로그램 차별화 전략

- 국정감사 보도에서 의원 개개인의 이슈 따라잡기에 급급, 유치원 문제와 세습고용 이슈는 모든 매체가 다루는 공통 의제화. 주요 정당에 대한 시간 안배 차원의 편집이 눈에 거슬림. 뉴스원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수준으로 타사와 차별화된 기사는 보이지 않음(오준 위원장)
- 뉴스 시작할 때 나오는 연합뉴스가 만드는 뉴스라는 뜻은 무슨뜻인지 다른 뉴스와 무엇이 다른지 캐릭터를 잡는 것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음(이우영 위원)
- 국정감사 관련해서 핫한 이슈만 하고 지나쳐 버리거나 때우기 식의 보도가 많음. 자극적이지도 않고 쓰지는 않지만 중요한 이슈를 발굴해서 사회적인 문제를 제기해주는 주어 차별화를 제고하는 것이 필요함(이우영 위원)
- 진행자는 꼭 젊고 예쁜 사람만 써야할 필요가 있는지 궁금함. 벨류가 있는 데스크급이라든지 연륜 있는 여성앵커라든지 연합뉴스티브이의 차별성과 홍보측면에서 진행자도 교체해 보려는 노력이 필요함(이우영 위원)
- 전체적으로 뉴스에서 나오는 스트레이트 보도 외에 기자나 전문가가 코멘트할 때 허겁지겁 관련자만 나오는 면이 있어 보임. 단지 구성의 다양성 측면보다는 사람들의 필요성과 용도 등 고민해봐야함. 분야별로 경제, 정치, 외교, 사회 등 전문가 풀을 만들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서 지속성 있는 해설과 자문을 이슈별 분야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이우영 위원)

▲ 긍정 및 기타 의견

- 9.30(일) 방영된 "트렌드 지금 여기"는 '길지를 찾아서'(풍수지리 관련) 제하에 우리나라의 명당 마을, 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을 배출한 부산 법률사무소 건물 등에 관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었는데, 재미있는 내용과 알기 쉬운 진행 방식으로 호감을 주었다고 평가됨(오준 위원장)
- 일가양득 프로젝트 2부, 저출산대책에 관한 내용인데 아주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었음. 스웨덴과 우리나라의 엄마를 비교하는 내용으로 해서 두 국가의 저출산대책, 특히 스웨덴의 정책과 제도를 잘 소개하는 것이었음. 중간 중간에 전문가의 해설도 있고 인터뷰도 있고 잘 짜여진 프로그램이었다고 생각됨(김석민 위원)
- 라이브 투데이에서 중요한 내용의 뉴스는 기자들이 출연해서 설명하는 모습이 좋음. 미국의 금리 인상 같은 내용을 잘 설명하는 것을 보았는데 말도 조리 있게 잘 하고 전문성도 있는 내용이었음. 전문가 출연도 필요하지만, 연합뉴스 기자들이 나와서 설명하는 것이 뉴스 프로에 생동감을 주는 효과도 있음(김석민 위원)

- 출발 640 등 뉴스 보도가 많이 개선됨. 앵커가 부분부분 뉴스 보도하던 것을 없애고, 보도기자와 호흡을 맞추는 방식으로 현장 생동감이 훨씬 높아졌음. 사립유치원 보도시 자막으로 스토리를 보여주는 방식, 국감일정에 맞춰 오늘의 국감스타를 조명하는 것도 참신하고 시의적절했음(이경상 위원)
- 수화뉴스 검토가 필요함. 미국 허리케인 발표 시 수화통역사와 함께 발표 사례 참고. 시청자에게 긴요한 재난, 위기, 긴급뉴스에 수화통역사 활용 적극 검토 필요(오준 위원장)
- 국감기사 종합 기능 부재(온라인 뉴스). 이슈별로 묶어 쉽게 찾을 수 있어야, 기사 모아 보기가 안 됨. 모바일 서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음. 수용자 입장에서 국감정보 공개의 전범을 만들 필요가 있음(오준 위원장)

(끝).